

초록번호 01-1

제 목	국 문	의사의 과잉 공급 우려	
	영 문	Oversupply of physician	
저 자	국 문	유승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
및 소속	영 문	Yu, Seung Hum <i>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</i>	
분야	보건관리	발 표 자	유승흠
발표형식	구연	발표시간	15분
진행상황	연구완료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, 연구중 (<input type="radio"/>) → 완료 예정 시기 :	년 월	

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의사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. 그것은 대학병원을 위시한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며, 의예과 지원율이 매우 높고, 의사의 보수수준이 높다는데 근거하고 있다. 단순하게 의사대 인구비를 볼 때에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나, 선진국이 한국 소득수준과 같을 때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다. 아울러 한의사가 의료에 종사하고 있으며, 약국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가름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.

한편 지난 20년간 의과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의예과 정원이 증가일로에 있으며, 특히 최근에는 각종 정원외 입학이 늘어났는 바 앞으로 10년 후이면 의사 절대수가 선진국보다 많게 될 것이다. 의사의 공급과잉은 경제위기를 맞은 데 즈음하여 전문의의 취업난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되리라 예상된다.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공급과잉이 문제되었으며, 1980년대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이기 시작하였다. 한국에서도 서둘러 의예과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.